

## ■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김양수 장성군수

## “나노 기술산단 조성 총력”



김양수 장성군수는 취임 일성으로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겸손한 군수가 돼 따뜻한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를 위해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모든 일을 직접 의뢰 없이 공개하는 ‘투명행정’, 타 상행정을 지향하는 ‘현장행정’, 근 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눈을 놔 으로 돌리는 ‘비교행정’,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효율 행정’, 미래비전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창의 행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후된 장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부흥·군

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중간 마진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유통·가공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며 “잔디와 곶감·사과·민물고기·축산물을 지역 특산물을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장성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풍부한 관광자원에서 찾고 있다.

최근 아토피와 천식 등 치료 효과가 입증된 죽령산 편백나무 숲과 때문지 않은 황룡강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모으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침체된 농촌 분위기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죽령산은 편백나무 숲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황룡강은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광주시민을 겨냥한 가족관광명소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 기간 군민화장을 강조한 김 군수는 민선 5기 재임 기간 군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통해 장성 발전을 견인한다는 생각이다.

부자 농촌 만들기를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농정의 기본 방향으로 ‘전업농 육성’과 ‘영세 소농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쪽으로 설정했다.

김 군수는 “농산물의 생산은 가

## 잔디·곶감·사과 등 지역 특산물 명품으로 육성

## 죽령산 편백나무숲·황룡강 연계 관광벨트 조성

민생활 환경개선·사회적 약자 배려·문화관광 진흥·교육지원 확대 등 20개 공약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펼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우선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부터 회생시키겠다”며 “나노 기술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하는 한편 광주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4기에 이어 대형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김 군수는 개발촉진지구 등 국책사업은 중앙

정부와 전남도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받아낼 계획이다.

반면 죽령산과 장성호를 잇는 관광벨트 사업을 비롯해 이미 착공하거나 추진 중인 대형사업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부자 농촌 만들기를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농정의 기본 방향으로 ‘전업농 육성’과 ‘영세 소농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쪽으로 설정했다.

김 군수는 “농산물의 생산은 가

## 강진군 ‘쌀 즉석 도정 자판기’ 인기



친환경 유기농쌀을 즉석에서 도정하는 자판기가 강진에서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고품질 쌀) 일환으로 ‘즉석 도정 자판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 13일 시연회를 가졌다.

강진을 서성리 대형 음식점 옆에 설치된 즉석도정 쌀 자판기는 폭 2m·길이 4m·높이 2.5m 크기로 현미와 백미 도정, 냉방기, 쌀 배출구 등을 갖췄으며 소비자 입장에 맞춰 현미·5분

도·7분도·9분도 등 4단계로 찧을 수 있다. 시간당 100kg을 도정할 수 있으며 3.3kg(1만원)을 찧는데 2분 이면 충분하다. 쌀을 즉석에서 도정해 필요한 만큼 구입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변질을 막을 수 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임현국씨는 “핵가족이 늘고 미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즉석에서 소포장 쌀을 구매 할 수 있는 도정 자판기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토지 매매

##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헌 011-620-3960 ☎ 062-381-6000
-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 믿음 공인중개사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 토지: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00평, 150평, 134평, 100평 매도 다량 보유
  - 구함 : 광주지역 삼가건물 15억~20억 사이
  - 구함 : 광주 첨단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 구함 : 하남공단 대지 500, 1000평 건물 300, 500평
-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업단지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 인근지역
  - 진곡, 임곡, 동이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 상업지역토지, 모델부지, 삼가건물 모델, 무인 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기임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변화기 : (웃매장 약 60평 임대)
-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 011-627-0876  
(첨단 세종문과 건너 쌍동이 일정 1층)

## 토종종자 확보, 농업경쟁력 키운다

## 道농기원 연말까지 상추·호박·시금치 등 수집 박차

## 생육특성·성분 함량 등 조사…토종 브랜드 개발키로

미국 전체 라일락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스킨 라일락’은 서울 북한산에서 자라는 ‘수수꽃다리’를 토대로 개발된 것이다. 1947년 미국 식물학자가 씨앗을 수집해 본국으로 가져간 후 관상용으로 유통했는데, 현재는 로열티를 주고 역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시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용 정원수로 인기를 끄는 나무는 ‘구상나무’이다. 한라산 중턱 이상의 고지대 등지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세계적 농학자 노먼 블로그가 육종에 성공해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 디수확 밀 품종 역시 토종 밀 품종인 ‘얇은뱅이 밀’이 기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2월까지 전남도 농가에서 조상 대대로 재배해 왔던 원예작물의 토종종자 수집 운동을 펼친다.

하고 일부는 시험포장에 재배해 ▲병해 저항성 ▲생육 및 수량성 등 우량 형질을 확보, 신품종 육종의 유전자원으로 활용한다.

토종종자는 우리 지역의 환경과 토양에 가장 잘 적응한 품종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종자 생산과 소비자들의 안전농사를 선호 추세에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토종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성분분석과 추출 등을 통해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가 소득자원으로서 부가가치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이숙재 재소연구실장은 “이번 전통 재래 토종종자는 저온 보관

기의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생육특성과 병충해, 기능성분 함량 등을 조사해 지역특산 토종 브랜드를 개발하고 신품종을 육성하겠다”며 “농업인과 민간 수집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 전남도농기원 오늘까지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15~16일 영암 오로라 테마리조트에서 ‘제2회 전남 사이버농업인 CEO 전진대회’를 열고 있다.

‘변화! 도전! 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농업인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 창조기업 심현용 대표의 주제강연과 사이버 농업인들의 성공사례가 발표된다.

사이버 농산물시장은 초기인 지난 2005년 판매액 28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1조9000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

박민수 기술원장은 “대도시와 떨어진 전남에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판매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앞으로 사이버 농업인들의 정보 교류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지방자치 경영대상 평가

## 영암군 ‘종합 대상’

영암군이 한국공공 차지 연구원 주관의 ‘제15회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영예의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200여개 세부 평가지표와 주민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영암군은 월출산을 배경으로 펼치는 수상유지컬 ‘영암아리랑’과 ‘기찬드’ 조성·구림마을 명소사업 등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활성화 부문에서도 대불국가 산단 기반시설 확충과 활발한 기업유치로 지역산업·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업·공업·관광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 여건을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 모내기 후 이웃과 함께 음식 나누며 풍년 기원

## “아름다운 미풍양속 ‘써래 시침’ 아시나요?”

## 영암 덕진면 영보마을

끌난 들녘을 보며 ‘써래 시침’ 행사를 열었다.

〈사진〉

‘써래 시침’은 농사의 가장 기본

인 모내기를 마치고서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푸는

농경문화의 미풍양속이다.

덕진면 노송리와 영보리·운암리 3개리 마을 주민들은 ‘써래 시침’을 통해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써래는 모내기를 하기 전

눈을 고르는 전통 농기구로 ‘써래

시침’이란 말은 더는 써래를 쓸 일

이 없기 때문에 써래를 썻어둔다

는 데서 나온 말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영암 덕진면 영보마을을 통해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써래는 모내기를 하기 전 눈을 고르는 전통 농기구로 ‘써래 시침’이란 말은 더는 써래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써래를 썻어둔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덕진면 노송리와 영보리·운암리 3개리 마을 주민들은 ‘써래 시침’을 통해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써래는 모내기를 하기 전 눈을 고르는 전통 농기구로 ‘써래

시침’이란 말은 더는 써래를 쓸 일

이 없기 때문에 써래를 썻어둔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업·공업·관광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 여건을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인생 열쇠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도원하는 비를 성취 못하시는 분
- 이유없이 삶에 징애가 생기고 병고로 시달리시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062-383-8982

## 광천동 e-편한세상

## 선착순 특별분양(할인 9~28% 적용)

## &lt;총 1096세대&gt;

## 분양률 95% 이상

## 입주률 80% 이상

##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 111㎡(구, 33평) 로일동 / 164㎡(구, 49평) 로일동

## 191㎡(구, 58평) 디일동 / 디수 보유

## 142㎡(구, 43평) 로일동 / 로일동

## ▶ 112동 1002호 ▶ 113동 1004호